



발행인 배규식
편집인 홍민기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0년 12월 16일

2020년 노동시장 평가 및 2021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2020년에는 음식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등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의 임시직이 큰 충격을 받았다. 임시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었던 청년, 중고령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비경화로 이동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졌고 청년 실업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조업 고용은 감소 추세를 이어갔고 건설업 고용도 업황 둔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반기 비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했지만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반등에 실패했다. 내년 고용 상황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매우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2021년 취업자 수는 19.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경기 상황이 2020년 하반기에 회복세인 점, 건설업 고용의 증가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확대, 코로나19 상황의 개선 등의 요인으로 고용 지표는 위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다.

I. 서론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약 200만 명의 일자리가 충격을 받았다. 취업자 수는 102만 명 감소하였고, 일시휴직자는 99만 명 증가하였다. 5월부터 8월까지 충격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가, 9월부터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노동시장의 회복이 정체되어 있다.

2020년에는 음식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등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의 임시직이 큰 충격을 받았다. 임시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었던 청년, 중고령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하에서는 2020년 노동시장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021년 고용 상황에 대해 전망해 본다.

II. 2020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비경황로 이동하는 중장년층과 최근 실업이 늘어나는 청년층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3~4월에는 23만 명 감소하였다가 6월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노동시장에 반영된 9월부터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과 음식 및 숙박업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으로 2020년에는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청년층 경제활동참여가 달라지고 있음

청년층 노동시장은 2020년 4월까지 실업자가 감소했으며, 잠재구직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들어 완화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점차 늘었다.

중장년층(30~59세) 취업자는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평균 39만 6천 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3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 명 증가했다. 남성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2018년부터 고용이 점차 감소하는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꾸준히 고용률이 증가해 온 여성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여성은 음식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접촉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중장년층 여성은 실업자로 이동
중장년층 남성은 비경황로 이동**

중장년층 여성 실업자는 3만 6천 명 증가했는데, 전직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했던 미취업자가 실업자로 이동하면서 남성보다 노동시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오히려 실업자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는데, 대부분 '쉬었음'으로 이동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2019년 보다 확대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취업자는 39만 명 늘어났고, 이 가운데 12만 명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해당한다.

노인일자리 영향으로 고령층 고용은 활발하나 방역 상황에 따라 일시휴직 이동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시휴직자의 증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연령대별로 일시휴직자는 주로 고령층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초고령층은 노인일자리

〈표 1〉 2020년 성별·연령대별 고용지표(1~10월 평균)

(단위: 천 명, %, %p, 전년동기대비)

		남성	(증감)	여성	(증감)
15~29세	취업자	1,835	(-79)	1,940	(-86)
	실업자	206	(-9)	173	(-15)
	비경황	2,419	(12)	2,351	(30)
	고용률	41.1	(-1.1)	43.5	(-1.2)
	실업률	10.1	(0.0)	8.2	(-0.3)
	일시휴직	36	(22)	57	(32)
30~59세	취업자	10,703	(-174)	7,373	(-222)
	실업자	317	(-6)	237	(36)
	비경황	1,172	(107)	4,131	(64)
	고용률	87.8	(-0.9)	62.8	(-1.2)
	실업률	2.9	(-0.0)	3.1	(0.5)
	일시휴직	210	(92)	328	(122)
60세 이상	취업자	2,843	(190)	2,215	(198)
	실업자	112	(5)	74	(12)
	비경황	2,415	(105)	4,246	(116)
	고용률	52.9	(0.6)	33.9	(1.4)
	실업률	3.8	(-0.1)	3.2	(0.2)
	일시휴직	105	(65)	147	(1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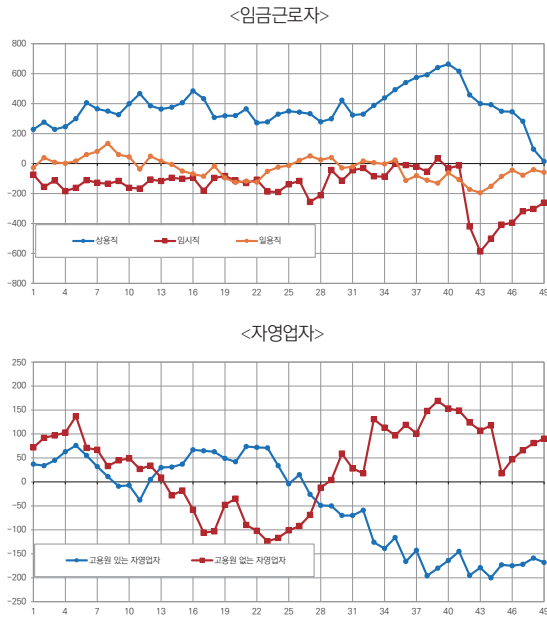
사업 참가자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일시휴직 상태가 되었다. 30~40대 중에서는 일시휴직자 중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 회복되었다. 50~60대는 매달 10만 명씩 다양한 업종에서 일시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시휴직의 장기화가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은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임시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큰 감소

임금근로자가 감소한 시기는 통계가 작성된 이후 세 번 있었는데, 1993년 1~4월, 1998~99년 외환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이다. 외환위기 시 임금근로자 감소는 기업들의 도산 등으로 상용직 일자리의 큰 감소에 주도되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임시·일용직 감소의 영향이 크다. 자영업자(고용주+자영업자)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거시경제 충격 이후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중심의 고용조정이 발생한 사

[그림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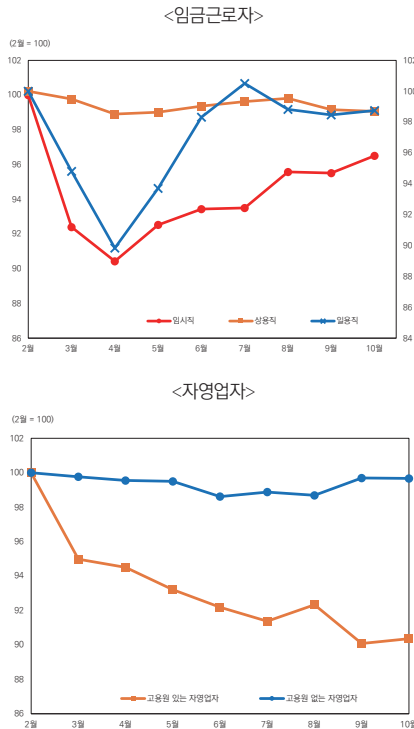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례가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와와의 차이점은 임시직 감소가 이례적 수준이라는 점이다.

2020년 취업자 변동에 임시직 근로자 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임시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경기변동에 비교적 민감한데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비중도 높다. 종사상 지위별 고용변동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는데, 코로나19는 특히 임시직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절조정된 자료로 보면, 임시직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2월에 비해 3월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10월까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했다(그림 2 참조).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시직은 전년동기간대비 평균 39만 9천 명 감소했는데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정부 일자리사업 영향이 큰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임시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했다. 음식숙박, 도소매, 교육, 협회·단체에서 크게 감소했고, 예술·스포츠도 3월 이후 임시직이 감소했다. 이들 산업에서 임시직이 3~10월 약 37만 7천 명 감소했고,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가 더 컸다. 월별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가 점차 완화되면서 임시직 감소규모는 4월을 저점으로 10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축소되는 중이다. 계절조정 수치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된 9월을 제외하고 전월대비 증가하고 있다.

임시직 취업자 흐름은 임시직 신규 입직자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채용을 취소·연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역시 임시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취업자를 신규 입직자로 정의하여 살펴보면, 임금근로 입직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5월 평균 약 48만 명 감소했는데, 임시직에서만 38만 명 감소했다. 도소매, 음식숙박을 포함한 대면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업에서 크게 감소했던 임시직 입직자는 6월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임시직에서는 취업자 감소와 함께 일시휴직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취업상태이지만 일시적인 이유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일시휴직자는 3~10월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가 임시직에서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감소폭 확대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임시직 크게 감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노인일자리아 업이 일시적으로 중단·재개되었기 때문이다. 임시직 일시휴직자는 3~5월 평균 약 52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교육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에서도 일시휴직자 증가폭이 빠르게 축소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9월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5월 이후 임시직 일시휴직자는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자영업자는 감소 추세였는데, 2020년 3월 이후로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업종 중심으로 변동이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3~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8만 2천 명 증가하였다. 월별로 보면 증가폭은 축소되었는데, 이는 음식숙박, 도소매, 교육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금융위기 이후에 비교적 짧은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온 특성이 있다. 2020년 2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한 고용주는 기존 움직임으로 볼 때 올해 반등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10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3개월 연속 감소하는 중이다. 고용주는 3~10월 평균 약 18만 명 감소하였고, 특히 음식숙박업에서 3월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매일 고용주가 감소하였고, 10월은 2월보다 약 9.6% 감소하였다(그림 2 참조).

자영업자는 취업자 증가를 이어간 반면, 고용주는 매월 크게 감소

3.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제조업 고용

업종별 취업자 수의 변화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각 산업별 2월 취업자 수를 100으로 정규화한 뒤, 3월부터 취업자 수 변화를 나타냈다. 윗쪽 그림을 보면, 하반기에도 여전히 취업자 감소 중인 산업들을 보여준다. 음식 및 숙박업과 부동산업은 대면서비스업 중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이 큰 산업이다. 2월에 비해 음식 및 숙박업 취업자 수는 8.7% 감소했고 부동산업은 8.0% 감소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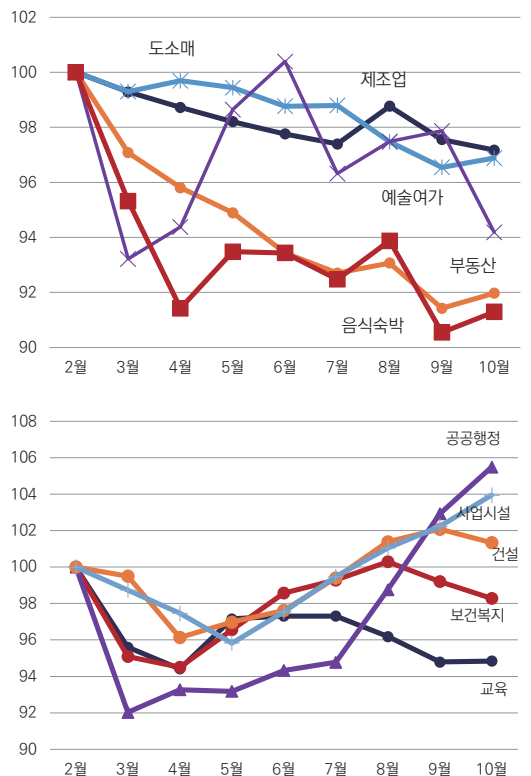
공공근로사업 속계로 공공행정 취업자 증가

비스업은 3월 감소 후 6월까지 빠르게 회복되는 듯했으나 3분기 들어 다시 취업자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아래쪽 그림은 2월 이후 취업자 수가 크게 하락하였다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선 산업들을 보여준다. 공공행정은 하반기에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이 속계되면서 2월 수준을 넘어선 취업자 증가를 보였다. 건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은 8월 이후 2월 취업자 수준을 뛰어넘은 산업들이다. 교육서비스업은 5월 이후 부분적인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나아진 모습이었으나 8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고령층 취업자 위주의 증가세가 9월 이후 주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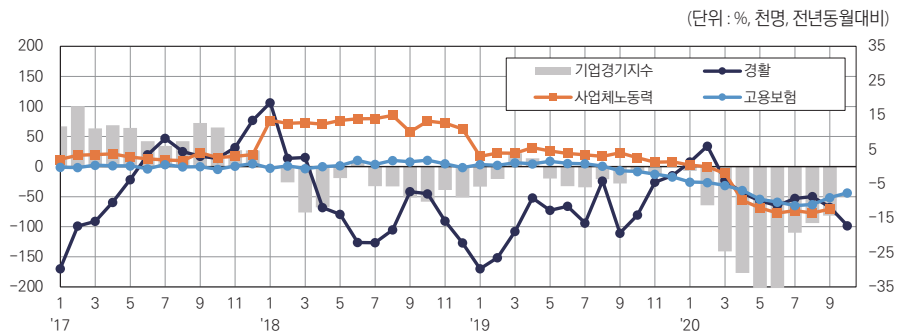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은 2분기부터 커졌으나 계절조정치 전기대비로 보았을 때 기존 감소 추세선상에 있다. 여러 대면서비스업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 :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4] 제조업 기업경기지수 증가율, 고용지표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KOSIS.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않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 감소는 2분기 이후 감소폭을 줄이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는 10월에 더 크게 감소했다.

세부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업황이 하반기 들어 나아진 모습이다. 완성차의 대외수요 악화로 수출 및 생산은 줄었으나 내수는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동기간대비 6.2% 증가하였다. 회복세를 보이는 업황과는 별개로 산업의 특성상 업황 변화가 즉각적인 고용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회복세, 친환경차 수출 증가(1~10월 12.1%) 등이 이 산업 고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길 기대해야 할 것이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은 반도체 산업 위주로 생산이 증가했다. 반도체조용장비 수입액, 특수산업용기계 수출액 등 반도체 관련 선행지표들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 감소폭도 8월 이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고용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1차 금속, 금속가공, 기타기계 제조업 업황은 부진했다. 건설업, 조선업, 자동차 등 전방산업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금속, 금속가공 생산도 계속 좋지 못했다. 업황 침체와 함께 이 산업들의 피보험자 감소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감소규모가 커지고 있는 않지만 전방산업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이 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건설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건설업 고용

건설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고용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3분기에는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다. 건설수주는 민간주택 수주가 급등하면서 크게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1분기 4.2% 증가 이후 다시 감소로 전환했으나 내년은 올해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은 종사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고, 업황에 따라 빠르게 고용량이 조정된다. 따라서 늘어난 민간주택 수주에 대한 인허가, SOC 예산 증액 등의 요인이 건설경기 부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건설업 고용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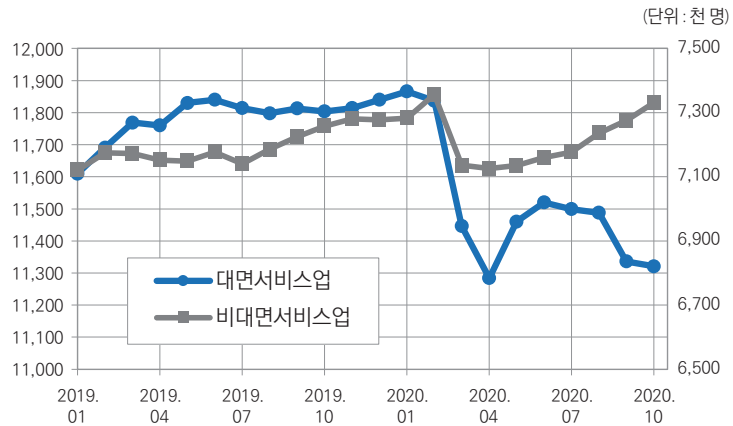
5. 고용 증가가 이어지는 비대면서비스업과 반등에 실패한 대면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2020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하였다. 계절조정 취업자 수로 보면, 5~6월 반등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고용은 3분기에도 부진을 이어갔다. 서비스업 일시휴직자는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9월에 급증한 후 10월에는 감소하였다. 5~7월, 9~10월 등 확진자 수 증가가 누그러드는 시기에는 근로시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근로시간의 조정이 매우 탄력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면서비스업은 1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분기에 감소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하지만 3분기

감소 추세에 있는 제조업 고용

[그림 5]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 계절조정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던 8월 이후 뚜렷한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 9월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4월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10월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이는 대면서비스업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영업제한이 빈번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비대면서비스업에서는 2월 코로나19 충격 이후 꾸준히 고용이 증가하였고,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9~10월 고용은 증가하였다. 당분간 서비스업 고용 증가는 비대면서비스업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서비스업 고용은 비대면서비스업이 견인할 것

대면서비스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도·소매업은 기존의 감소 추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올 3분기 취업자는 특히 상용직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로시간별로 보아도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에서 감소가 커져 전일제 근로자의 감소가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음식 및 숙박업은 올해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업종이다. 3분기에는 상용직의 감소가 가속화되었고 일용직 역시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근로시간별로 45시간 이상 근로하는 전일제 취업자들의 고용 감소가 주를 차지하였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는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고 있어 장시간 근로자의 고용 감소를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체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상반기에 고용이 크게 감소한 이후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 3분기에는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이들은 10~3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하였다.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보면, 학습지교사가 포함되는 기타 근로자의 감소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교육서비스업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고용 상황이 불안정한 취업자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세부업종별로 보면, 3분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사회복지업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비거주 복지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어 돌봄인력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대면서비스업을 살펴보면, 운수 및 창고업은 여객업이 포함되어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업종 중 하나이다. 3분기 역시 여행 수요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겹치면서 육상 및 항공운송업 등 운수 및 창고업의 업황은 3분기에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인터넷 쇼핑 및 배달음식 등 비대면 소비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에 택배업과 관련된 소화물 전문 운송업과 보관 및 창고업, 종사상 지위별로는 배송업과 관련된 자영업자 운수 및 창고업의 고용을 지탱하고 있다.

정보통신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처럼 코로나19

로 업황이 좋아진 업종도 있고, 극장 운영처럼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입은 업종도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로는 5월까지 고용이 반등하다 6월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기업경기지수,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모두 5월 이후 개선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 상황이 부정적이지는 않다. 세부 업종별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포함된 출판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 등 코로나19 수혜산업의 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는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어 취업자 수 역시 긍정적으로 반등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고용 추세도 자료마다 매우 다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전년동월대비로는 상반기에 증가를 유지하였지만 3분기에 감소세가 되었다.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3분기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9~10월 증가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 자료로 보면, 연구개발업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임대서비스업은 상반기 고용이 하락한 이후 2~3분기에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V-자형 반등을 보인 업종이다. 기업경기지수 또한 아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7월부터 급반등하며 나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역시 감소를 줄여나가고 있어 전반적으로 업종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공행정에서는 상반기에 노인일자리아업이 지연되면서 고용 감소가 있었지만 3분기에 일자리아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 추세도 일치한다. 주로 임시직, 특히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직과 사무직이 증가하였다.

III. 2021년 고용 전망

내년 고용 상황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매우 달라질 것이다. 2020년에 고용 상황이 단기적으로 큰 변동을 보였기 때문에 2021년 고용 상황 지표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포함된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2021년 취업자 수는 19.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2월까지의 취업자 수가 예외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기저효과와 더불어 코로나 확산의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0년 하반기에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년반기대비 -36.9만 명), 현재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기저효과에 의해 2021년 하반기에는 약 35만 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상황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경기 상황이 2020년 하반기에 회복되었다. 둘째, 건설투자, 민간주택 건설 증가의 영향으로 건설업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2021년에 더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상의 요인들이 작용한다면 내년도 고용 지표는 위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4만 명, 하반기 35만 명, 연간 19.5만 명 취업자 증가 전망

여러 기회 요인으로 인해 고용 지표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 있음

〈표 2〉 2021년 고용 전망

(단위: %, 천 명)

	2020			2021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26,799	27,018	26,909	26,839	27,368	27,104
(증가율)	-0.2	-1.3	-0.8	0.1	1.3	0.7
(증감수)	-60	-369	-214	40	350	195
실업률	4.2	3.7	3.9	4.2	3.7	3.9
고용률	59.9	60.3	60.1	59.7	60.8	60.3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KLI EMPLOYMENT
& LABOR
BRIEF